건축문화 사랑

Vol.070 10. SEPTEMBER 2015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5.09 07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55 T062.521.0025 F528.0026

광주건축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송양석 건축사, 2015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추대

시론 _ 0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인의 자세와 역할 _ 박용묵 회장

건축정보 _ 03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보
–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건축투자활성화 대책"발표

설계경기 _ 04 ~ 05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설계공모
'가칭' 동악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학술지면 _ 06
비점오염원 관리방향설정 1부 _ 이정기 LH처장

사람&issue _ 07
광주건축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송양석 건축사 _ 2015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추대

대학뉴스 _ 08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 '전남의 석탑' 발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설계동아리 'DH' 10주년 기념 워크숍 가져
2015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개최

NEWS _ 09 ~ 10
2015년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고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는 10월 15일 개막해 11월 13일까지 열려
전남·전북건축사회, 2015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광주건축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송양석 건축사 _ 07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 _ 08
광주건축사회, 남구 희망주택리모델링 후원 사업 진행 _ 09
광주건축사회 및 지역건축단체, 무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_ 1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인의 자세와 역할

박용묵 회장/건축사
전라남도건축사회
다산 건축사사무소 대표
dasan-ac@hanmail.net

건축문화사랑에 기고할 원고를 정리하던 중에 추자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낚싯배 돌고래호의 사고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펐다.
더욱이 우리 지역 해남에서 출항했고, 멀지 않은 추자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라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 아물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렸다. 그래서 그 심경을 담아 안전에 관한 고민을 먼저 쓰기로 했다.
특히 건축인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안전사고가 그칠 날이 없을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로 안전에 관한 제도와 장비는 크게 발전하였고,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안전관리기법과 안전수칙 및 안전장구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유행어처럼 언급되고 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제도나 장비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며, 그것은 바로 안전의식이고 안전생활화이다.
안전을 운운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년 남짓 지났지만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대형 참사였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의 대개혁과 대변혁을 천명하셨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과제도 컸다. 각계각층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승선인원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부실한 관리시스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무기력한 위기대처능력,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또한 이윤에 눈이 멀어 적재용량을 무시한 채 증축하고 개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듯 세월호 사고는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와 황금만능주의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100여 명의 사상자 발생했던 것도 사회적 파장이 컸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적설하중 설계기준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폭설이 지적되었지만, 건축에 대한 이해부족과 건축인의 과오도 드러났다.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부재, PEB구조의 이해부족에 의한 시공부실, 설계강도에 미달한 철강의 재질 등이 사고의 직간접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위키백과사전 발췌).

1995년 6월에는 서울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1천여 명이상이 사상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원인은 부실공사였고, 그 배경에는 건축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부실이 있었다. 처음에는 상가로 설계되었던 것이 백화점으로 변경되어 1989년 완공되었고, 이후에 몇 차례의 증축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공사와 부실한 관리가 이어져 결국은 파국을 맞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

이외에도 아산오피스텔 전도, 울산외고 기초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계의 요구 성능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쉽게 변경해 버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전문가의 개입, 불법적인 개조와 성능변경, 관리시스템의 부실 등이 만연되어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는 불법적 개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마우나리조트는 안이한 설계 성능의 결정으로 돌출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으며, 삼풍백화점은 엉터리 증축과 유지관리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탈법·편법적 행위를 일반인들은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건축분야를 예로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는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축주들이 갑을논리를 앞세워 전문가들을 제압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건축주들은 편의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기도 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워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도 하며, 때로는 말을 더 잘 듣는 전문가로 서슴없이 교체 해버리는 게 현실이다.

결국,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전문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화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자나 이용자 스스로가 부적절한 건축행위를 경계하고 불안전한 건축물은 도태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몰아내는데 앞장서듯 말이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책임이 가볍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은 참으로 크다. 때로는 소통과 설득으로 때로는 교육과 지도를 통해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전문가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건축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분야의 전문가들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 덤핑수주 · 가로채기 · 편법권유 · 영역다툼 · 내용부실 등이 속출하고, 심지어 일반적인 상식과 전문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봐와 같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풍토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 본다.

① 수주 대가의 현실화 및 최저대가 기준 마련.
②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풍토조성.
③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 관계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정.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내용이며 당연한 얘기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검토하고 노력해야할 사안도 제시해 본다.

가) 설계자와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의 책임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검토체계 구축 등 허가권자의 역할과 권한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나) 건축사의 업무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축구조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원활히 리드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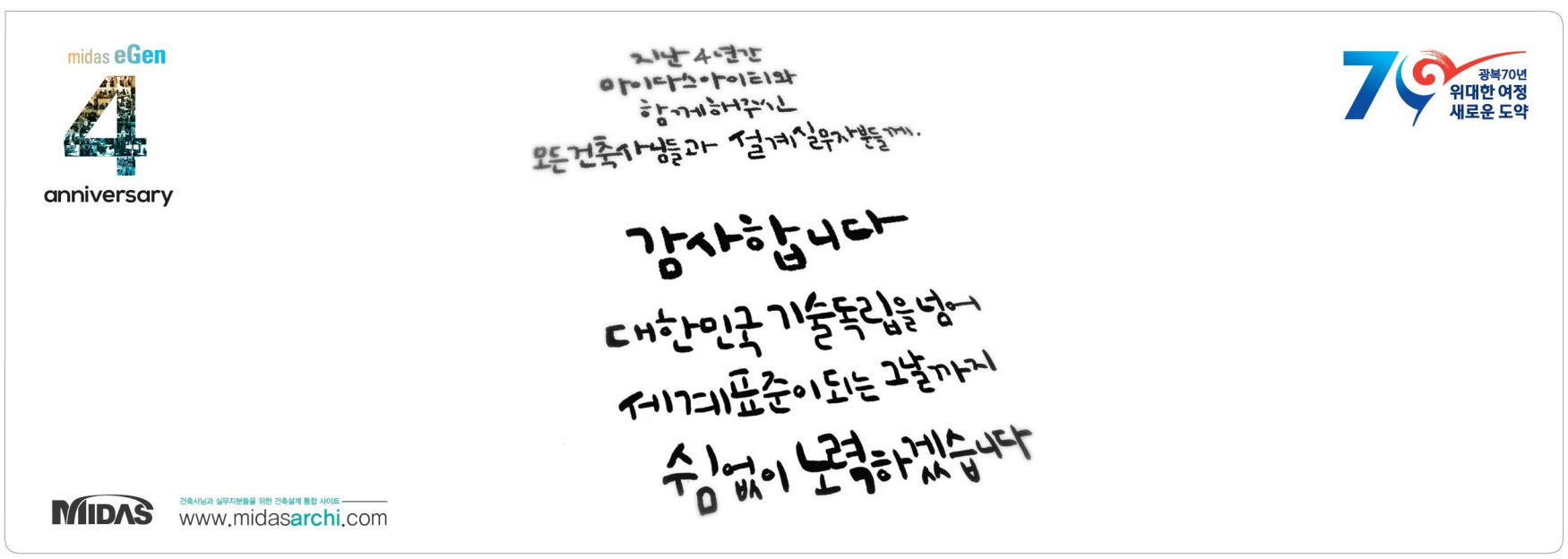
다) 건축에 관한 정책과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안전의식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제도, 안전의 생활화가 전제되지 않는 형식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건축구조와 건설안전이 등한시되는 건축교육 등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축의 3요소는 '기능 · 구조 · 미'라고 한다. 즉, 건축에서 구조적 안정과 안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등 건축물 축조와 기능유지에 관계되는 전문가는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가와 건축주 및 사용자 또한 최소한의 안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누구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에서 면허하는 유일한 건축전문가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건축사가 알아야할 건축정책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보

–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9월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건축물 노후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정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노후건축물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한 대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리뉴얼 자금융자 및 컨설팅 지원, 새로운 건축시장 발굴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① 결합건축제도 도입

○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30년 이상 된 건축물 : 248만동 (전체 건축물의 39%)

** (현행) 각 대지별 용적률 별도 적용 → (개선) 복수의 건축물을 동시 재건축시 대지간 용적률 조정 허용

– 예를 들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나,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합건축 개념도〉

– 다만, 기반시설 부족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므로 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상 소유자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건축협정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들이 협정 체결 방법과 절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시 용적률을 20% 완화 가능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확대*된다.

* (현행)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 → (개선)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건축설비 모두 가능

– 소유자가 공유지분자인 경우 현재는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공유자 4/5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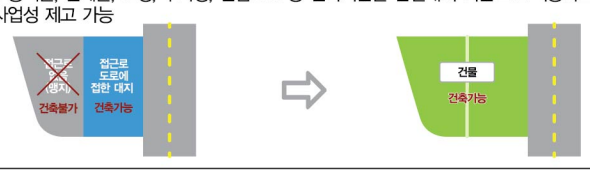
–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성과, 건축협정 가이드라인을 건축주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지자체별로 건축협정 유망지 발굴, 정보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건축협정제도〉

·(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대지로 간주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구역 등

·(기대효과)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사비 절감 및 사업성 제고 가능



③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 건축법 시행(‘62년)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은 건폐율*이 100%에 근접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면도로 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조화로운 경관,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지정가능하며, 건폐율·높이제한 등이 완화됨(건축법 제77조의2)

– 다만, 원활한 소방안전 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로구역 中 건축기준 완화 범위 등은 선별하여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장관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을 받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역선정을 유도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LH의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 방치건축물(949개동) 사업 재개 지원(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 등 개정, ‘15.4/4분기)

*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금전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

○ 전국에 공사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이 949동(‘14.12기준)에 달하나, 사업성 부족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문제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용도변경 허용과 사업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지연되는 문제와 공공건축물 내 민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총 대장가액 32조6천억원)

○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15.4/4분기)을 개정하여 공공청사도 민간투자 대상으로 추가하고

–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유재산법 개정, ‘15.4/4분기)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여 개발(국유재산법 제59조의2)

** (현행)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재산, 청사이전으로 용도폐지한 재산 등(개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추가

○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는 위탁개발기관으로 LH 등 공기업을 추가*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5.4/4분기분기)

* (현행) KAMCO만 위탁개발 가능→(개선) LH 등 공기업 추가

○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50년까지 허용한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①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도시정비법 개정, 15.4/4분기)

*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시정비법 8조)

– 현재는 천재지변시 정비사업 시행인가 2년 지연 등의 경우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D급(사용제한), E급(사용금지) 받은 경우도 지정개발이 가능하며, 조례의 용적률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부담으로 안전점검·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한다.

* 150세대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② 건축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융자를 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리뉴얼에 5천억원 이상 지원 한다. (운용지침 개정, ’15.4/4분기)

○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택 뿐 아니라 노후건축물을 리뉴얼하는 경우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지침 제정시 반영, ’15.4/4분기)

○ 지자체에서도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건축물 정비 융자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건축법 개정, ‘15.4/4분기)

○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축소(191개소→152개소)하여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기술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① 부유식 건축물(floating architecture)* 제도화

*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위에 고정된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세빛섬 등)

○ 소득수준 증가, 건축기준의 발달 등에 따라 부유식(floating)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안전기준 등 법규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의 곤란한 상황이므로,

–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현행: 선박 또는 건축물)를 명확히 하고, 건축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부유식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의 정의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가 마련되며,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방재·설비·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제정이 추진된다.

②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기준·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를 허용*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예시: (현행) 기숙사 → (개선) 기숙사+숙박시설 (방학기간 활용)
(현행) 연수원 → (개선) 연수원+숙박시설 (주말기간 활용)
(현행) 창 고 → (개선) 창 고+판매시설 (공간구획없이 가능)

–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 예를 들면, 기숙사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가능하고 창고시설도 판매시설까지 허용 받아 저장 수용에 따라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개선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5년 09월 10일(목)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의 필요로 종합적 양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독창적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설계공모를 실시함.
발 주 처:순천시　　설계공모방식:일반공개공모
심사위원:김경원, 이동희, 정금호, 정경석, 정광용, 손경식, 탁기봉, 조준익, 임종필

당선작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우수작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이현조 건축사
가　작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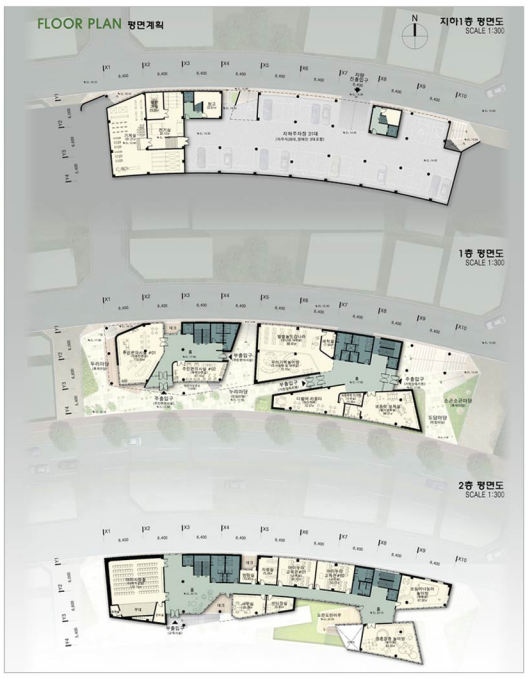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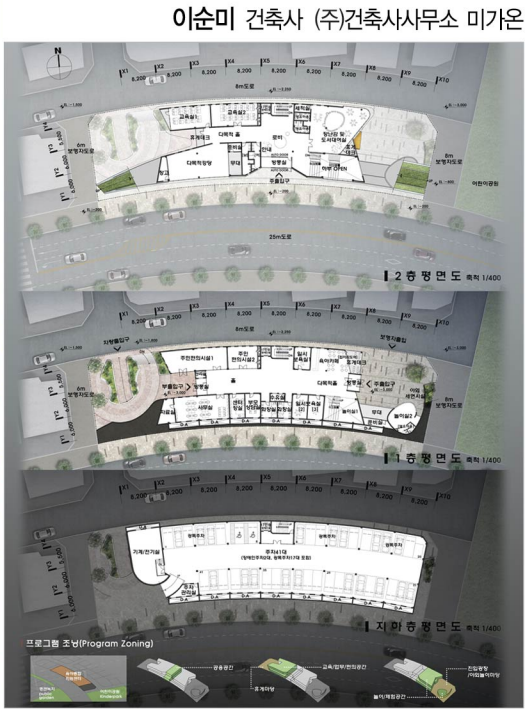
우수작

이현조 건축사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가작

이순미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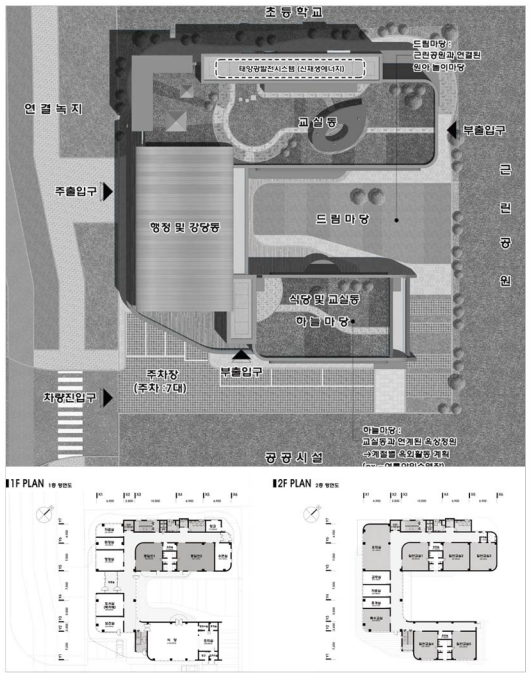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원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수요자들의 공립 유치원 설립 요구에 부흥하고자, 예정부지의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우수한 학교시설물 건축을 위한 창의성 및 예술성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발 주 처 : 전라남도교육청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심사위원 : 전호민, 손승광, 최재혁, 고성석, 정동조, 진정, 안은희, 송복섭, 윤현도

'가칭' 동악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
우수작 : 씨엠 건축사사무소　　배용섭 건축사

당선작

강연심 건축사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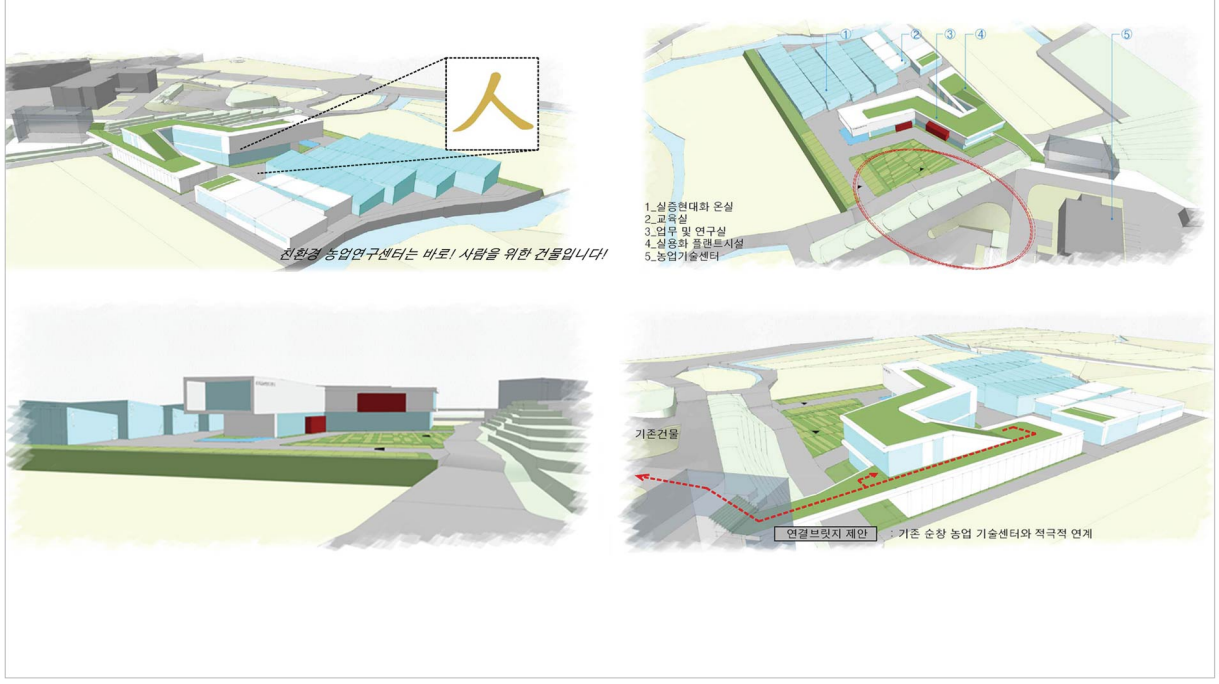
친환경농업의 활성성화를 위한 저비용 유기농업 개발, 실용화 연구, 지역 농민들의 교육과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설계 공모임.
발주처 : 순창군　　설계공모방식 : 제안공모
심사위원 : 진정, 임용림, 오상목, 김영훈, 고명환, 강석표, 김재수, 김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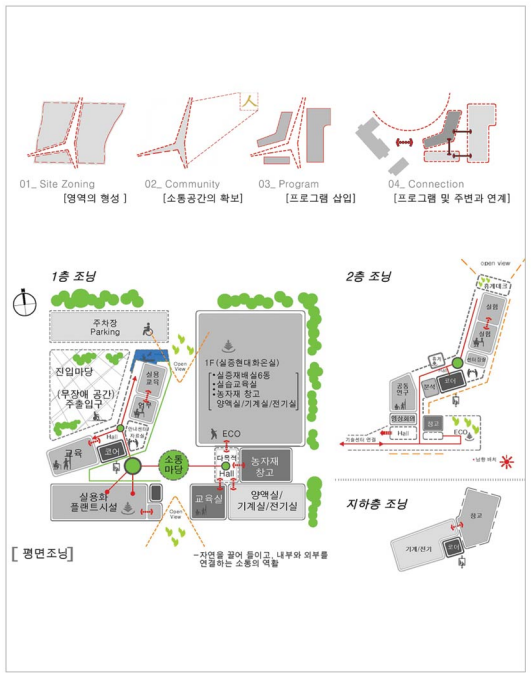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우수작 :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
가　작 : (주)율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강문수 건축사

당선작

이길환 건축사　(주)길 건축사사무소





비점오염원 관리방향설정 1부

– 이 정 기 LH 처 장 (현.광주전남주거복지사업단장) / 전남대 · 동대학원(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석사)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수료

Ⅰ.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개요

1. 비점오염원의 정의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입자상 물질,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지칭한다.

문헌에서는 비점오염을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 토양의 침식, 흙덩이, 강우유출량의 증가, 대기 중 오염물질, 부유물질, 용존성 오염물질,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오염물질 등이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2. 비점오염물질의 종류

비점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사 (Sediment)
2) 영양물질 (Nutrients)
3)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Bacteria&Viruses)
4) 기름과 그리스 (Oil&Grease)
5) 금속 (Metals)
6) 유기물질 (Organics)
7) 농약 (Pesticides)
8) 협잡물 (Gross Pollutants)

1) 토사(Sediment)에는 영양물질, 금속, 탄화수소 등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하게 된다. 토사는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영양물질(Nutrients)인 질소·인과 같은 물질은 비료로 사용되는데, 종종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하천·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주택 및 골프장의 잔디밭이나 농경지, 도시노면 및 하수도에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

3) 박테리아와 바이러스(Bacteria&Viruses)는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월류된 배출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미국에서는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천·호소가 오염되어 폐쇄의 원인이 된 사례도 있다.

4) 기름과 그리스(Oil&Grease)는 적은 양으로도 수생 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누출이나 차량전복 등 사고, 차량 세척, 폐기름의 무단 투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5) 금속(Metals)은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등으로서, 도시지역 강우유출수에서 흔히 검출되는 물질이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금속 물질량 중 50%이상이 토사를 매개체로 하여 배출된다. 금속물질은 수생태계에 치명적이며 생물농축이 일어나고 음용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6) 유기물질(Organics)은 밭, 논, 산림, 주거지역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유출되며, 특히 합류식 관거에서는 하수관거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유기물질이 강우 시 일시에 배출되기도 한다. 공업지역에서는 접착제, 세척제, 용제(溶劑) 등의 인공적인 유기 화합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부적절하게 저장되며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7) 제초제, 살충제, 항곰팡이제와 같은 농약(Pesticides)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켜 어류와 조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 협잡물(Gross Pollutants)에는 건축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잔재물, 부유물 등에는 중금속, 살충제, 박테리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낙엽이나 잔디를 깎은 잔재물, 동물의 배설물, 투기된 쓰레기 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하천·호소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며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어류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 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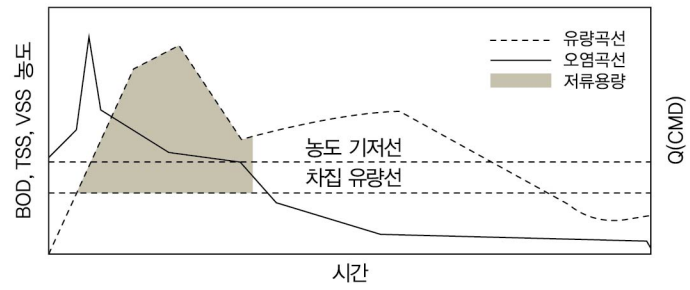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규모 및 용량 결정

1) 대상유역의 적정 강우사상에 대한 수문곡선(hydrograph)과 오염곡선(polluto graph)을 이용하여 수질이 건기상태로 회복되는 시점, 즉 강우초기에 평시 수계의 수질보다 악화되었다가 다시 강우유출수 수질이 건기 유출수 수질로 회복하는 시점까지의 유량으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그림 1〉 적정 저류용량 규모 산정 모식도

2) 배수구역의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합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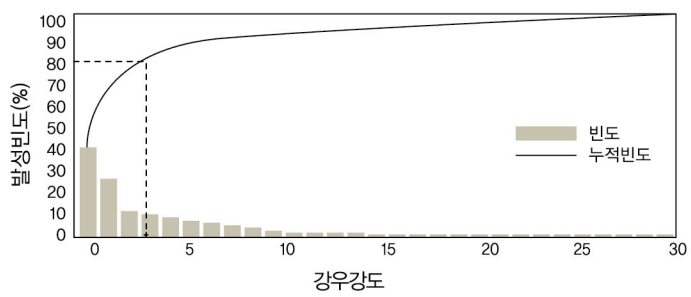
기준이 되는 규모의 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WQv = P1 \times A \times 10^{-3}$$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m3)
P1 : 설계강우량으로부터 환산된 누적유출고(mm)
A : 배수면적(m2)

이에 저류시설, 인공습지 등 강우유출수를 초기에 저류하여 처리하는 시설은 수질처리용량(WQv, m3)을 활용하여 시설의 용량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강우유출수를 연속하여 처리하는 시설인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 중 식생여과대 및 식생수로 등은 수질처리유량(WQF, m3/h)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용량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다.

수질처리유량(WQF, Water Quality Flow)은 합리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기준강우 강도를 적용하여 수질처리유량을 결정할 수 있다. 기준강우강도는 최근 10년 이상의 시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누적발생빈도(cumulative occurrence fre-quency)80%에 해당하는 강우강도로 산정한다.



▲ 〈그림 2〉 강우강도 발생빈도를 통한 설계유량 산정방법

산정된 기준강우강도를 합리식에 적용하여 수질처리유량을 산정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WQF = C \times I \times A \times 10^{-3}$$

WQF : 수질처리유량(m3/h)
C : 처리대상구역의 유출계수
I : 기준강우강도(mm/h)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m2)

상기의 방법으로 산정되는 수질처리유량(WQF)은 자연형 시설 중 식생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하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유역현황, 토지이용특성, 방류수계의 중요성, 비점오염저감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모나 용량을 산정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선정시 고려사항

1) 비점오염원 관리는 강우유출수의 수량, 수질, 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비점오염원 관리는 기존의 자연적인 관리방안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설의 설치 시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효과적인 공간배치계획, 비구조적 관리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구조적인 관리방안은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한다. 구조적 관리방안은 발생된 비점오염물질을 차집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미하며, 비구조적인 관리방안은 비점오염원 유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규제, 도시관리, 도로청소 등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광주건축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송양석 건축사, 2015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추대

– 제12회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전야행사(11월 3일) '광주 건축인의 밤'에서 추대식 열릴 예정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이하 광주건단연/회장 안길전)에서는 올해 광주의 자랑스런 건축인으로 송양석 건축사(한미건축사사무소)를 추대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자랑스런 건축인 선정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에서는 지난 7월 말 이사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송양석 건축사를 자랑스런 건축인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고 광주건단연에 통보했다. 송양석 건축사는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광주건축사회 2대 회장(88년 11월~90년 10월) 재임시 현재의 광주건축사회관 건립을 이끄는 등 광주지역 건축사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건축사로 회자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송양석 건축사는 일제 강점기인 1938년 12월 8일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서 송용삼 선생과 송인례 여사의 4남중 막내로 태어났다.

1945년 초등학교 때 해방을 맞고, 6.25 전쟁을 겪은 격변시대 속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열은 남달랐다. 어린 송양석 건축사는 고흥 대서초교를 거쳐 순천으로 유학하여 순천북중과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건축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가 격변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훌륭한 건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열도 있었지만, 목수인 아버지가 판자에 설계도를 그려 집을 짓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보아온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공직자의 길을 걷다가 건축사의 길로 들어서

1960년 학창시절에 힘겨운 4,19혁명 시대를 보낸 송양석 건축사는 1961년 4학년 때 학보병으로 입대하여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침과 동시에 졸업했다.

1964년 9월부터 화순군청 4급 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실력과 성실함으로, 3.1민족대표 양한묵 추모비 설계표창, 군민보건 향상 공헌표창 등을 수상했다.

1967년 1월 23일 송양석 건축사는 나이 30세를 1주일 남기고, 고화자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을 두었으며 1971년에는 1급 건축사 자격과 1급 시공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1973년 3월에 공직을 사임하고 한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건축인의 길로 들어섰다.

송양석 건축사의 대표 작품들을 보면

광주 충장로 4가 관음사 신축공사(1992), 농성동 광주은행 농성지점(1987), 조선대학교 학군단 건물신축(2001), 전남대학교 경영대학(1997), 영암 금정중학교(2000), 화순 군민회관 신축공사(1984), 화순군청사 신축공사(1992), 화순교회 신축설계 외 4건, 삼미종합가구공장(1990), 나주 차병원(1991), 보성축협 신축공사(1992), 보성농협 사무소, 임곡우체국, 함평실고 골프연습장(2001), 화순 900골프장 감리, 득량 새마을금고 신축설계, 조성아파트 신축설계(1986), 광산구 한국화약 화약고 신축설계(1987), 승주 해룡면 전일식품공장 신축설계(1993), 보성 유기질 비료공장 미곡처리장, 조성 미곡처리장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오늘날의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신협이 있기까지

1982년 당시, 건축사들의 생활이 어렵고 은행문턱은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실상을 보고 건축사신협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故조춘원 건축사와 김보현 건축사 등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15일간의 교육을 받아 광주건축사신협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해 오늘날 광주건축사신협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1986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지부와 광주건축사신협, 광주건축사공제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1987년 하나로 통합하여 일원화 시키며, 지부장이 총괄 운영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 1989년 회장 재임시에는 공제회 미가입 회원이 설계비 덤핑 수주로 공제회 가입회원이 어려움이 생기자 미가입 회원 개개인 사무소를 방문하고, 설득하여 100% 공제회원에 가입을 시켜 공제회 모든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1989년 1월에는 현재의 광주건축사회 건물을 회원의 현상설계를 거쳐 기공부터 감리와 준공까지 이끌며, 광주건축사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송양석 건축사 약력을 보면

광주시 건축위원 2회 역임(1984–1986), 광주건축사신협 이사장 3회 역임(1984–1986), 제2대 광주건축사회 회장(1988–1990),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1988–1991), 광주직할시 설계심의위원(1989–1991),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장(1990–1992),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2회 역임(1990–1993), 대한건축사협회 감사(1995–1997), (주)중원 건축사무소 대표이사(2000–2004)등을 역임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

송양석 건축사는 50여년의 세월을 건축인으로서 타인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여든에 가까운 현재에도 건축인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더불어 사랑애'라는 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인 게이트볼 서구연합회 사무장과 광주광역시 연합회 심판위원장을 맡으며 지역민들의 건강한 생활까지 책임지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후배들과 지인들은 "우리 광주 지역에 건축사이자 시민으로서 이와 같은 커다란 족적을 남긴 송양석 건축사의 정신을 본받고자 한다"고 밝히며 2015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추대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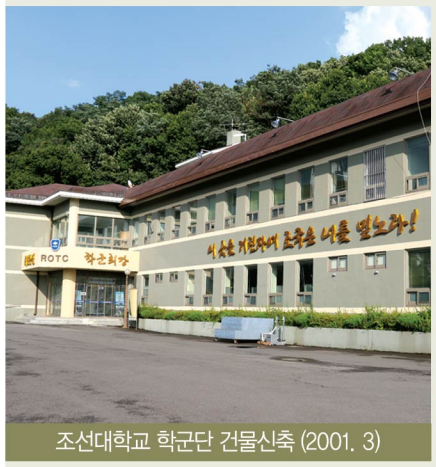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광주 / 한미 건축사사무소 **송양석**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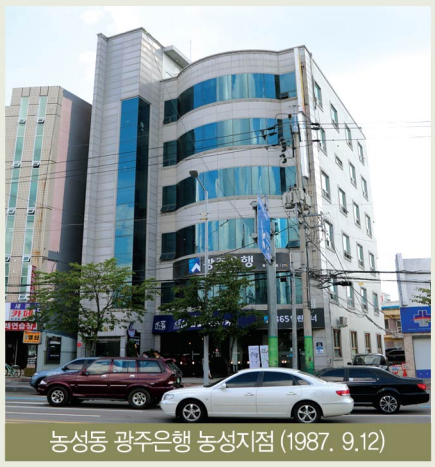
▲ 광주건축사회관 준공 기념 테이프컷팅식(1989. 9. 28)

▲ 생활체육인 게이트볼 서구연합회 사무장과 광주광역시 연합회 심판위원장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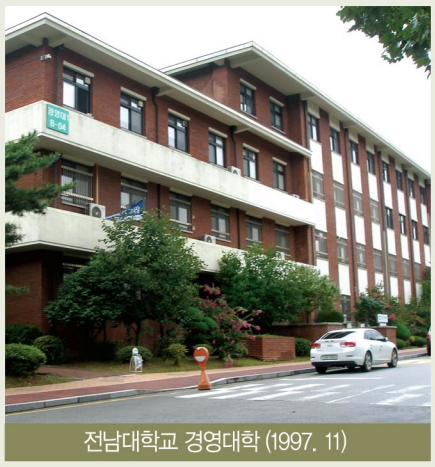
▲ '더불어 사랑애' 봉사 활동



조선대학교 학군단 건물신축 (2001. 3)



농성동 광주은행 농성지점 (1987. 9.12)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997. 11)

화순 군민회관 신축공사 (1984. 2. 29),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

– 지난 9월 4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예비 건축인들을 위한 학생아카데미 개설 등 논의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건축전공(학/공학) 학과 학생 대표들과 지난 9월 4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비 건축인들을 위한 학생아카데미 개설 계획과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학생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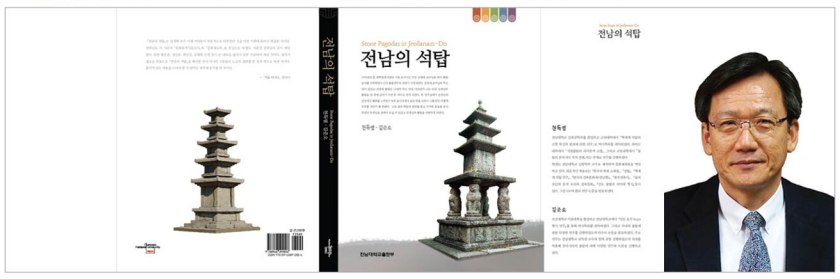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정인채, 조휴환 부회장, 김선영 부이사장, 장정수 교육홍보위원장 등과 각 대학 건축 전공학과 학생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생 아카데미 개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참여 가능 여부와 필요 교육과목, 교육 수료자에 대한 혜택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대내외적으로 건축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서 각종 건축 관련 정책 수립시 올바른 건축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건축정책포럼'에 학생들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정명철 회장은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위해서는 예비건축인들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건축사회가 주관하는 학생 아카데미 개설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향후 학생아카데미 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각 대학에 공고하여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 '전남의 석탑' 발간

– 광주, 지역에 현존하는 100여 기의 석탑을 사진과 함께 소개



광주와 전남 지역에 현존하는 100여기의 석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책이 발간되어 화제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가 광주·전남에 산재한 석탑을 총망라해 조사·연구한 개론서 '전남의 석탑(전남대학교 출판부)'을 발간했다.

이 책은 천득염 교수가 30여 년 동안 수집한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규명한 광주·전남 지역 석탑의 특성을 담았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 현존하는 100여 기의 석탑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석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찰의 연혁은 물론 장엄 조식이나 부장품에 대한 내용도 고찰했다.

한국의 탑에 대한 개론서가 그간 여럿 발간되어 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었지만, 전남지역에 어떤 탑이 있고 이들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설명해준 책은 없었다. 이번에 출간된 천득염 교수의 '전남의 석탑'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책으로, 석탑에 관해 관심 있는 일반 대중과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득염 교수는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와 고려대학교에서 '백제계 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문화재위원을 맡고 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설계동아리 'DH' 10주년 기념 워크숍 가져

– 지난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회와 여수 도시답사 진행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설계동아리 'DH'는 1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가졌다.

2006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DH동아리는 설계 스터디를 목적으로 모여 구성된 그룹이며 구례운조루 전통모형제작 스터디와 제1회 한브랜드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스터디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디자인동아리DH 제1회 겨울방학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15회에 달하는 방학워크숍을 개최했다. 건축디자인 이외에도 세계도시정보 학생기자활동, 순천만정원박람회 모형제작, 창업동아리(노래하는 Object 초롱이)활동, 편집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과 2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DH출판사를 운영하여 포트폴리오, 순천시 조사보고서, 동아리 커리큘럼 등의 서적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10주년 기념 워크숍은 DH동아리의 OB team(졸업생)과 YB team(재학생)과의 3년만의 재회이자 두 번째 정기모임으로써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향후 동아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면서 깊이 있는 정담회가 이어졌고 다음 날 워크숍 장소였던 여수 도시답사로 마무리하며 1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대윤** 학생기자 eodbs411@naver.com

2015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개최

– 총상금 1,200만원이 걸린 공모전, 광주 남구 월산동 355번지 일원 대상지로 재생 공모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전)에서는 총상금 1,200만원이 걸린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광주 남구 월산동 355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재생 공모가 진행되며 마을형 공동체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구상 및 제안 내용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사무국(062-521-0026)으로 하기 바란다.

사랑에서_열

일어나, 일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 한다. 면역력은 건강해야 생기는데 그 기본은 걷기다.

걷기는 뇌 활동 증가 및 정신적 안정, 각종 질병 예방과 체중감량에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꺼리며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한다. 그래 놓고는 따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특정 공간에서 기를 쓰며 운동을 한다.

생활과 운동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걷기만으로도 상당부분 정신 및 육체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일상속에서 틈나는 대로 걷기를 실천해 봄직도 하다. 걷기를 하려면 일단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기회만 되면 앉고, 앉아 있다 보면 눕게 되고, 누어있다 보면 잠들게 된다. 본능적으로 몸은 순간의 편안함으로 행한다.

몸이 편안 할수록 몸 건강은 불편하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실천을 잘못한다.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를 외쳐본다. 건강을 위해서도, 인생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다.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린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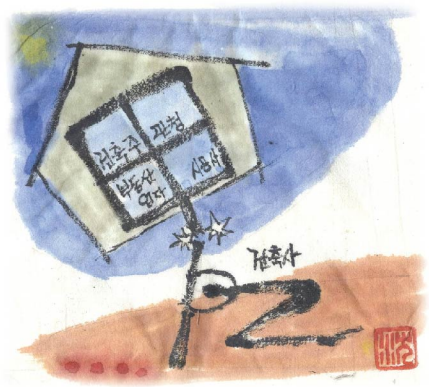
그래야 산다. 그래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모 할 수 있다. 주저앉아 있다가는 건강과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가수 김광석이 부른 '일어나'란 노래가 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 있을까/둘러봐도 소용없었지/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지금은 가을의 문턱이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혹독한 겨울에, 땅 속에서 봄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체들처럼 내공과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계절이다. 그래야 봄날이 되면 새싹들처럼 일어날 수 있다.

지나간 봄과 여름에 연연하지 말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을에, 미래를 맞이할 설레임으로 일어서서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란 말처럼 끝까지 일어나 버텨보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하지 않는가.

〈 **박홍근** 자문위원_aforyou@naver.com 〉

건축사 만평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건축계가 바로서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심상봉 건축사 作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법무법인서석 |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춘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광주건축사회, 남구 희망주택리모델링 후원 사업 진행

– 남구청과의 협약에 따라... 광주 남구 월산동 337-43 주택 보수 작업 시행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9월 9일, 남구청(구청장 최영호)과 가진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 따라 후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6월 12일 광주 남구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은 광주건축사회는 7월 말경 남구청에서 추천한 후원 대상 주택 3곳을 심사한 결과 남구 월산동 337-43번 주택을 지원 대상 주택으로 결정했고 선정 주택에 대해 도면작성에 나섰다. 광주건축사회는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물량 및 예상 금액을 산정한 후 이날 착공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최영호 남구청장과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남구청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옥상창고 기존지붕과 주택 기존지붕을 지붕용 샌드위치 판넬로 보수하고, 옥상바닥에 우레탄 방수 시공을 하며, 벽면 페인트칠, 옥외 계단 보수(핸드레일 설치), 대문 설치 공사로 다가오는 추석(9월 26일)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명철 회장은 착공식에서 "올해는 남구청과 협약을 통해 지원을 진행했는데 향후에는 광주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건축사들의 사회봉사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주택리모델링 후원사업은 취약계층 세대의 낡고 노후화된 주거 문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15년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고

–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로 접수

(2014년 광주건축상 금상_오월어머니집/(주)포유 건축 박홍근 건축사 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에서는 지역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하고 시상을 위한 「2015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응모 작품을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접수받는다.

응모대상은 2013년 이후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되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작품에 한한다. 시상구분은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되며 각각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이 선정되고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그리고 건축물에 동판이 부착된다. 또한 건축사에게는 건축사사무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경감조치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선 위촉된다.

작품제출은 소정양식의 다운받아 응모신청서와 패널 A0(841×1189㎜) 1매, 건축물사진(5″×7″) 2장, 작품설명서(A4) 1부(5매 이내)로 제출 기한 내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2015-823번이나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70035번을 참고하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담당자 : 김관휘 주무관/062-613-4813)로 문의하기 바란다.

2015 광주건축사 회원 작품 초대전 작품 모집 공고

– 오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열리는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시를 위한...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광주건축사 회원 작품 초대전이 개최된다.

이에 광주건축사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를 팩스(062-528-0026) 또는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접수 받고 있으며 작품 제출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출품작품은 현상설계 당선 또는 준공건축물로 전시회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이며 JPEG, PSD 파일(규격 A1사이즈 1매/ 594×841mm)을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7001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5 광주건축문화투어 진행

– 오는 10월 17일 인천권역 투어진행, 참가자 접수 10월 2일까지

선진건축문화 탐방을 통해 광주의 건축문화발전을 모색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광주건축문화투어가 오는 10월 17일 실시된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며,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협찬하는 이번 2015 광주건축문화투어는 인천권역의 근대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들을 답사하게 된다.

주요 장소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장소인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청,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도시계획관', 차이나타운주변의 근대건축물 및 아트플랫홈, 자유공원 등을 답사하게 된다.

일반시민과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등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착순으로40명을 10월 2일까지 전화(062-521-0026) 또는 메일(gjkira@empas.com)로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일반이 2만 5천원, 학생은 2만원, 중식과 석식이 포함된 금액이며, 입금 계좌(신협 132-085-649733/예금주 : 강필서)로 입금 후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062-521-0026/담당자 곽승국 대리)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축구동호회 전지훈련 및 호남교류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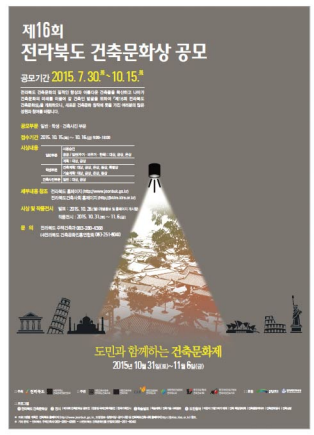
–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전남 신안 안좌도에서

광주건축사회 축구동호회는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신안 안좌도에서 전지훈련 및 호남교류전을 개최했다.

호남교류전에는 광주, 전남,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회원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안좌중학교에서 회원들 간의 기량을 겨루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 지난 7월 30일 작품공모 시작,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작품 접수



아름다운 건축물을 창조하고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도민소통의 만남의 장으로 치러지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의 건축문화상 작품 모집 공모가 시작됐다.

건축문화상 작품 모집은 일반부문 사용승인과 계획분야, 학생부문 계획·기술 분야와 건축사진 부문 등 총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그간 도민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로 확대 개최됐다.

이번 건축문화상은 지난 7월 30일부터 작품공모를 시작했으며,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접수예정이다. 접수된 출품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하여 도지사상과 각 단체장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를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북도청 전시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는 10월 15일 개막해 11월 13일까지 열려

–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입장권 사전 구입시 30%까지 저렴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15일에 개막하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1월 13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전에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지역산업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을 보여주는 "광주 브랜딩(GwangJu Branding)전"이 펼쳐진다.

또 "유쾌한 디자인나눔"을 키워드로 하는 "디자인콘서트"와 "광주문화디자인샵"이 본전시의 테마로 구성되며 국내외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디자인 R&D"전과 "아시아디자인 허브(Asia Design Hub0"전 등이 선보인다.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특별전에서는 뉴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뉴 이탈리안 디자인 2.0(New Italian Design 2.0)"전과 MoMA 특별전, 국제공모전 등이 전시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디자인콘텐츠도 함께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의 작품이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건축인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매입장권 판매를 본격 개시했으며 사전예매를 했을 경우 30% 정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매 입장권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전인 10월 14일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www.gdb.or.kr) 티켓정보란을 통해 판매된다.

전남·전북건축사회, 2015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 전북건축사회 9월 15일, 전남건축사회 9월 17일 진행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묵)와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지난 8월 말 공지를 통해 2015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강을 희망하는 건축사는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에서 대한건축사협회 ID로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교육과정안내에서 실무교육을 선택 후 해당 건축사회 선택하여 교육일자와 교육과목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한 후 결제를 마치면 신청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축사회(전남_061-285-7563/전북_063-251-6040)로 문의하기 바란다.

〈 전북건축사회 〉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장소
09.15.(화)	10:00~12:00	지구단위계획 실무 I (A)	(주)엄앤드이 종합건축 이관표 건축사	전북 전주 바울교회내 바울센터 2층
	13:30~15:30	지구단위계획 실무 II (B)		
	16:00~18:00	도시 경관관리의 원칙과 국내경관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 박사	

〈 전남건축사회 〉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장소
09.10.(목)	13:30~15:30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강부성 교수	전남 여수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15:30~17:30	비정형과 친환경건축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정규 교수	
09.17.(목)	13:30~15:30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강부성 교수	전남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2층 문화컨텐츠홀
	15:30~17:30	비정형과 친환경건축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정규 교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현황 확인 안내

건축사실무교육 이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원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음

1. 이수필 교육시간

기간	윤리교육	전문교육	자기계발
2013년 5월 ~2018년 5월 (5년)	5시간	40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이수기간의 종료일자는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2. 확인방법

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원 (http://www.kirakarb.or.kr) 로그인

나. 상단메뉴 건축사 → 실무교육 이수현황에서 이수과목 확인

※자기계발교육은 1년간 이수 인정시간이 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광주건축사회 하반기 주요 행사일정 안내

일자	장소	행사명	내용
2015. 10. 22 (목)	서울 코엑스	2015 한국건축산업대전	산업대전 참관
2015. 11. 04 (수)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문화제 개막식 참관
2015. 11. 06 (금) 오후 4시~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204호	건축사 윤리교육 실시	건축과 인문윤리의 만남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건축사회 및 지역건축단체, 무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 지난 8월 22일 동구 금수장에서 진행, 건축설계·감리업계 주요 현안 등 논의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건축 단체 대표들이 지난 8월 22일 광주 동구 금수장에서 무소속(광주 서구을) 천정배 국회의원과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정인채 부회장, 조휴환 부회장, 김선영 부이사장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안길전 회장, 강필서 사무총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염환석 회장, 김인호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남승진 회장, 박홍근 부회장, 나무 심는 건축인 신정철 회장, 김기준 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역사회에서 건축사의 역할이라는 의제로 진행되었고, 건축설계·감리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김태흠 국회의원과 김상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의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정명철 회장은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감리분리 법안이 몇 년째 계류 중에 있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도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화수도 광주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제안하기 위해 광주건축사회를 중심으로 '광주건축정책포럼' 창설이 논의되기도 했다.

▣ 광주건축사회 동정

***변경(소재지)**

– 정광렬 건축사 / 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풍영로228번길 39, 4층(장덕동, 이수빌딩)

– 이형규 건축사 / 대안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5동 313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 정구영 건축사 / 예가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봉선2로 49, 4층(봉선동)

– 김성현 건축사 / ㈜시대종합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77, 402호(화정동, 추선회관)

– 강동영 건축사 / 주식회사 청어람알앤씨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공학관 602호

▣ 전남건축사회 동정

***입회**

– 김영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6, 2층

***변경(소재지)**

– 김기호 건축사 / 기홍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궁2길 79(조례동)
– 장진영 건축사 /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중앙로 16 (남내동) 2층
– 이완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엠제이빌딩 10층(덕암동)

***결혼**

– 임현문 건축사 / 금호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_8월 22일 (토)

***부고**

– 차영식 건축사 / 한솔 건축사사무소
빙모상_8월 28일 (금)

▣ 전북건축사회 동정

***입회**

– 김현철 건축사 / 이성영 건축사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3길 4, 2층(서신동)

***결혼**

– 심재용 건축사 / (유)균정 건축사사무소
아들 결혼_8월 29일 (토)
– 박용규 건축사 / 소망 건축사사무소
딸 결혼_9월 12일 (토)

***변경(소재지)**

– 조상민 건축사 / 상민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고봉로 342(영등동)

***부고**

– 민백기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부친상_8월 19일 (수)

▣ 광주·전남·전북 9·10월 지역축제

▶ 09. 04(금) ~ 09. 2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축제_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광주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센터
▶ 09. 18 (금) ~ 09. 20(일)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2015_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 09. 19 (토) ~ 09. 20(일) 광주아리랑대축전 2015_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금남로
▶ 10. 07 (수) ~ 10. 11 (일) 김제지평선축제 2015_전북 김제 벽골제 일원
▶ 10. 07 (수) ~ 10. 11 (일) 전주세계소리축제 2015_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 10. 02 (금) ~ 10. 04(일) 광산우리밀축제 2015_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
▶ 10. 22 (목) ~ 10. 25 (일) 전주비빔밥축제 2015_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 10. 24 (토) ~ 10. 28 (수) 광주세계김치축제 2015_광주김치타운

법 / 령 / 정 / 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및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한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바, 토지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시 및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 및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함(안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나.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2조제7항, 안 제75조제2항 삭제, 안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라.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제5항 및 제6항 신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 주요 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나.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서비스법 입법예고 기간 : '15.8.21~9.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정명철,박용묵,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김강수,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안길전,국원식,김남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 집 인 서재형
부 편 집 인 정명환,백재봉,양우현
전 담 기 자 곽승국
논 설 위 원 이순미,신영은,정영법,박신남,강필서
편 집 위 원 정관성,강동영,김미영,이광영,윤미순 박종호,박주현,이종순
등 록 번 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행 별 월간
등 록 일 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유 T.062)385-9395
광 고 신 청 T.062)521-0025

표지설명

천연염색 공방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장으로 사람과 자연,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의 특성을 어우를 수 있도록 매개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김미영 건축사
(주)원우기술개발 건축사사무소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16면 전면광고:1,000,000원
•16면 외전면광고: 700,000원
•하 단 광 고: 350,000원
•하 단 1/2광 고: 200,000원

•구 독 료:20,000원/1년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전기금:1만원부터
•후원방식:신협 131-009-471898(예금주:광주건축사회)

광주건축사회		2,500,000원
소닉스시스템		1,000,000원
광해종합건설		45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직책 및 약력을 첨부.
3.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박철규 사원
여수 KCC여천 공장

어헤야디야 뱃놀이 가자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 가수들 중 하나인 DJ DOC 노래 중에 '뱃놀이'라는 유쾌한 노래가 있다.

상감마마 하해와 같은 뜻에도 불구하고 / 좌의정 우의정 대감 탐관오리들에 폭정이 싫어 / 이 몸 한양을 떠나련다 (어기여차 디여차) / 세상을 벗어나 바다가 있는 곳으로 떠나련다 / 엽전 열닷냥에 패키지로 떠나 보자꾸나 / 고쟁이에 고무줄 확실하게 동여매고 / 어기여차 디여차 (어기여차 디여차) / 짜증나는 세상을 떠나 뱃놀이 가자꾸나 / 타오르는 태양아래 바다로 가자 / 하얀구름 떠다니는 바다로 가자 / 사랑실어 꿈을 실어 바다로 가자 뱃놀이 가자 / 어기여디여차 어기여디여 어기여차 / 뱃놀이 가잔다 뱃놀이 가잔다 (2절 생략)

내용은 대강, 세상사에 염증을 느낀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이상적인 삶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내용인지 또한 얼마나 용기있는 행동인지, 어느 정도 인생의 중간점에 온 한 사람으로서 부러움과 시기의 한숨을 내쉬어 본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고 가정을 위해 회사에 목숨 걸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나와 그리고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뱃놀이라는 노래는 그야말로 무릉도원으로 가는 한 통로로 그려진다.

그러면서 그 노력에 대한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본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격언은 요즘 세상과는 정말로 맞지 않는다. 몸이라도 조금 성한 나이에 고생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즐기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경제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경제력을 만들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인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확실한 쾌감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위정자를 잘 선택해야 함에도 매번 투표일 때마다 정당이나 지역, 학벌, 혈연 등에 눈이 뒤집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는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욕을 내 뱉는다. 얼마나 아이러니 한 상황인지 한편의 코미디 같다. 벌써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무릉도원에 가기 위해 어떠한 배를 탈지 선택해야한다.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지 않고 태어난 죄이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들 어헤야디야 뱃놀이 하러 가자!

한편의 시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굳은 살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
있어야 할 곳마다
어김없이
굳은살은 자리하고 있다

누적된 일상의
성실함으로
자리 잡은 흔적 앞에

양심의 가책도 느껴보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머리를 긁적거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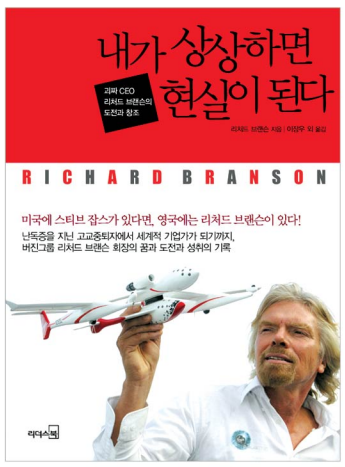
오늘 하루도
'부족한 삶이었구나'를
되새기며
가슴속을 들여다본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풍요로움도
사랑도 아니라는
굳은살의 속삭임에
피식 웃음을 보낸다

책 소개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_리처드 브랜슨(기업인)저/이장우, 류혜원 외 1명 역/리더스북 /2007.11.15.

문명길 건축사
전북 익산
온 건축사사무소



선천성 난독증에, 고등학교 중퇴자이지만 '창조 경영의 아이콘'이자 세계적 경영컨설팅그룹 엑센추어에서 '50대 경영그룹'으로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된 버진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그가 청소년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버진그룹을 일구어내기까지의 도전과 모험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쳇바퀴의 다람쥐 같은 삶이 싫고 무언가 변화를 갈망했던 나에게 조금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책이었다. 변화는 갈망하지만 결과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 하지 말고, 나를 제한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자.

나는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고, /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 상상한 것을 실현한다. / 내 꿈과 열정에 솔직한 것, / 그것이 내삶이고 경영이다.
– 리처드 브랜슨 –

지은이 리처드 브랜슨

기발함과 창조적 괴짜성의 대명사다.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버진그룹이 있기까지, 그 신화의 바탕에는 리처드 브랜슨의 괴짜적 창조성과 모험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가장 창조적인 경영자로 꼽히는 영국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랜슨은 이 책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과 경영을 이야기한다.

선천성 난독증이 있던 그는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고, 〈스튜던트〉라는 잡지를 창간하면서 일찌감치 경영자의 길에 들어선다.

1967년 버진그룹의 모태인 '버진레코드'를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30여 개국에 약 200개 회사를 두고 항공, 모바일, 음악, 인터넷, 음료, 호텔,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목숨을 건 기구여행을 즐기는가 하면, 브랜드 광고를 위해 각종 퍼포먼스로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등 그의 특이한 행보에는 끝이 없다.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이 몸소 실천해온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성공의 원동력이라 말하는데, 이는 그의 개인적 삶의 철학인 동시에 버진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도전, 모험, 혁신 등 자신의 독특한 퍼스낼리티를 완벽하게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전이시킨 리처드 브랜슨의 탁월한 브랜딩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그는 영국에서 자산 순위 5위 안에 드는 억만장자인 동시에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는 책임 있는 경영인이기도 하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미래 환경 문제, 자선활동과 관련한 버진그룹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층간소음방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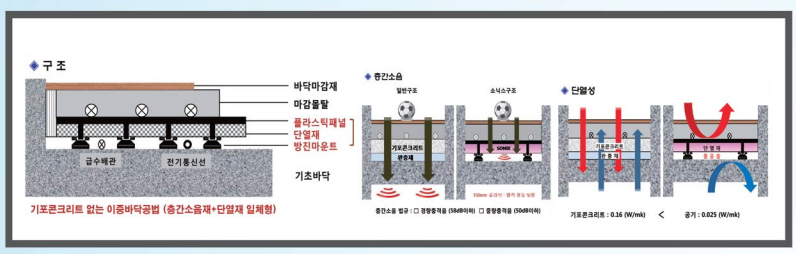
소닉스시스템

호남영업소

보다 더 조용하게!!

보다 더 따뜻하게!!

- 국토교통부 인정기관 인정제품!
- 국가공인시험 인정제품!
- LH공사현장평가 최우수성능!
- 국내유일최고현장 1등급!
- 주택 · 상업용 1등급시험성적!



기포콘크리트 없는 이중바닥공법 (층간소음재+단열재 일체형)

1. 측면 완충재 부착 (온돌마루 하자방지용)

2. 소닉스 패널 깔리 및 고정(완충재+단열재 일체형)

3. 난방배관 설치 (경량기포 CON'C 타설 공정 생략)

4. 마감몰탈 타설(철근구조 프레임에 의한 방통몰탈 크랙방지)

■ 소닉스시스템 특징

· 기포콘크리트 타설이 없는 이중공법으로 공기단축과 동절기에도 시공가능!!
· 층간 단열성능 우수, 난방 에너지절감 효과우수!!
· 층간소음 차단 우수성으로 조용한 주거환경조성!!
· 격자형 철근구조로 방통 몰탈의 크랙을 방지!!
· 내구성 · 시공성 · 환경성 · 경제성 등이 좋음!!
· 원할한 수분배출로 온돌마루 변색 · 변형이 없음!!

■ 소닉스시스템 시공사례

sonix SONIX SYSTEM
(주)소닉스시스템

본사/연구소 :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고운첨단과학기술원 914호
공장 : 1857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85-238

호남영업소 :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66(금호동)
대표전화 : 1588-0861 / TEL : 062-511-8889
홈페이지 : http:// www.sonix.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sonixq